로컬플러스

정읍소방서, 정화조 속 고양이 내시경 장비로 극적 구조

정화조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고양이가 119구조대의 내시경 장비에 매달려 극적으로 구조됐다.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난 14일 저녁 6시 37분쯤 정읍시 연지동 주택의 정화조 속에서 고양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한 뒤 정화조 구조를 살펴봤지만, 고양이를 구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2m정도의 깊이인 정화조로 들어가는 입구는 지름이 고작 10㎝도 안되는 플라스틱 관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주변 시멘트 바닥을 때려 부수는 방법이 유일했다.

이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사실상 고양이가 정화조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 밖에 없는 상황.

구조대원들은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현장에서 사용하는 내시경 카메라를 정화조 내부로 투입했다. 그렇게 30분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지친 고양이가 내시경 카메라 주변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내시경 카메라 주변에 조명장치를 달아 내렸다. 그 순간 대원들도 깜짝 놀랐다. 장비에 고양이가 매달렸고 구조대원들은 천천히 내시경 카메라를 들어올렸다. 그제야 고양이는 바깥세상을 만날 수 있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농아인협회 김제시지부 농아인 만든 사진 전시회 개최

전라북도농아인협회 김제시지부(회장 최춘규)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김제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농아인들이 만든 특별한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각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전시된 작품을 통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비장애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개최되었다.

올 봄부터 회장 최춘규씨와 10명의 회원들이 현장을 직접 누비며 찍은 40여점의 작품을 엄선하여 전시하였으며, 한글 수화교실 회원들은 본인들이 손수 만든 가죽공예작품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전을 관람한 시민들은 "다양한 주제와 신선한 구도가 느껴지는 좋은 작품들이 많았고, 그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며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찍은 사람이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지 모를 만큼 너무나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 감명 깊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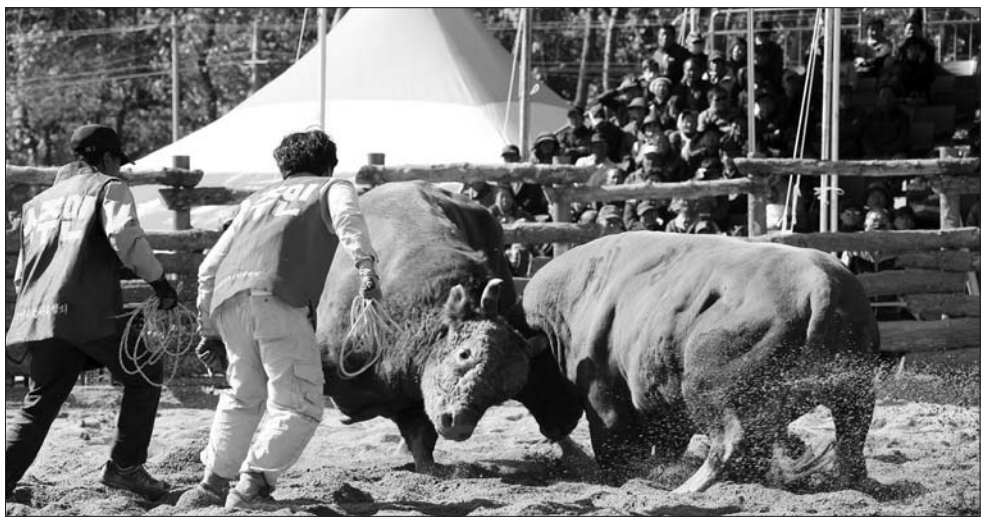
김제교월동, 사회보장협 월례회의

김제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김태한, 민간위원장 박경준)는 지난 7일 교월동 주민센터에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은 ▲ 긴급구호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내용 ▲ 지역특화사업 세부 추진 논의 ▲ 지역자원 발굴 및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민관협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후원금을 받아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방문상담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1세대(부부장애인)를 선정하여 이번 달 말에 협의체 위원들과 복지통장, 복지기동대 등 관내 사회단체의 재능기부를 받아 도배 장판 교체, 전기수리, 청소 및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경준 공동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관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신속히 지원받아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20회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간 내장산농경문화체험관 옆에 마련된 특설경기장에서 열린다.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 개최

27일부터 31일까지 내장산농경문화체험관 옆 특설경기장에서

제20회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간 내장산농경문화체험관 옆에 마련된 특설경기장에서 열린다.

정읍시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청도와 진주, 의령, 김해, 창원, 창녕, 완주 등 전국 11개 시군의 싸움소 170여두가 출전해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특히,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최고의 싸움소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돼 박진감 넘치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는 총상금 7천610만원을 두고 6개 체급별로 대진표 추첨에 의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급별 우승 싸움소에게는 백두급 600만원, 한강급 500만원, 태백급 400만원의 우승 상금이 주어진다. 4강과 8강, 16강에서 탈락된 싸움소에게도 각각 100만원과 50만원, 2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참가자격은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산하 양축가가 사육하고 있는 싸움소(한우)이어야 한다.

체급별 기준은 대백두(881kg 이상), 소백두(801kg~880kg), 대한강(761kg~800kg), 소한강(701kg~760kg), 대태백(671kg~700kg), 소태백(600kg~670kg)이다.

싸움소 계체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2시까지 진행되고, 대진표 추첨 후 본 대회에 들어가게 된다.

예선전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고, 30일에는 4강 진입 전, 31일에는 결승전을 통해 각 체급별 우승 싸움소를 가리게 된다.

개회식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으로, 식전행사로 빅이벤트 경기를 비롯 민요공연과, '진짜 멋쟁이'와 '여자의 마음'을 부르는 초대가수 진국이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대회 기간에는 정읍한우고기와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먹거리장터도 운영하며 다양한 축산물 시식회도 마련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공사대금 30일마다 지급

기성 · 준공검사 기간 단축 등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부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30일마다 기성검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침체된 지역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 170건(약 856억원)에 대해 30일마다 기성검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부안군은 기성·준공검사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공사대금 또는 노무비 지급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공사업체나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 발주공사에 대한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63-580-4271)를 운영해 공사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수요자들인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사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안에서 사업을 하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금산모악예술단,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공연 펼쳐

김제시 금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모악예술단(단장 박미성)이 18일 전주 중앙시장에서 진행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서 공연을 펼친다.

모악예술단은 금산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난타팀으로 시작하여 난타, 풍물을 비롯한 사물놀이, 가야금병창 등 다방면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왔다.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으로 국악인 김덕수의 제자, 박문기 강사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며 심도 깊은 예술적 소양을 쌓고 있다.

또한 금산면민들을 위해 재능기부, 면민의 날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지평선대학 8명 종자기능사 합격

종자생산관리과정 교육생 72명 중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17일 김제 지평선대학 종자생산과정 교육생 8명이 국가기술자격인 '종자기능사'에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일원 54.2ha 부지에 조성되는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종자생명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해 김제 지평선대학에 종자생산관리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 72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제 지평선대학 종자생산관리과정은 1년 과정으로 주요 민간육종기업 경영자 특강, 최신 육종연구·기술동향 및 종자기능사 필·실기 교육등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하여 종자관련 우수인력 배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김제 지평선대학 종자생산관리과정과 더불어 종자생산단기과정(3차)을 올해내 추가로 실시하고 2017년에도 종자생산단기과정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고 남부안농업 농가주부모임이 주관한 '요리뽕! 조리뽕! 부안 참뽕요리 경연대회'가 지난 15일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부안 참뽕요리 새롭게 개발해요"

전주대 최정환씨 등 4명 수상 영예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가 주최하고 (유)남부안농업 농가주부모임이 주관한 '요리뽕! 조리뽕! 부안 참뽕요리 경연대회'가 지난 15일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본선진출팀 15개팀이 출전했으며 본선진출팀은 인천과 부산 등 전국에서 모인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들로 일품, 코스, 뷔페, 레스토랑 요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요리실력을 겨뤘다.

이 자리엔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150여명이 대회를 참관하면서 참뽕요리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보였다.

심사결과 대상은 '오디소스를 곁들인 훈제수육돼지고기, 오디 청포묵을 곁들인 배 냉국, 오디 시럽소스를 곁들인 떡꼬치와 국화차'를 요리한 전주대학교 최정환씨 등 4명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남부안농업 농가주부모임 심계천·홍금이팀의 일품요리가, 우수상은 국제 한식조리학교팀의 레스토랑 요리가, 장려상은 부안정보화농업연구회팀의 레스토랑 요리와 전주대학교팀의 3코스 요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기준은 국제요리 경연대회 심사기준을 적용해 조리과정 및 기술, 메뉴 구성, 작품성, 상품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요리경연이 끝난 후 대회 관계자들과 관람객들이 모두 출품작들을 즐겁게 시식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보였다"며 "향후 대상작 등 입상작을 근거로 요리전문가 컨설팅 후 부안군에 보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